



## ☉ 한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외국기업 투자 줄이어

- 지경부,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 개최
- 총2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 체결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우리나라가 동반국가로 참석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기간중 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덴마크·영국 등 유럽 주요국 기업인과 투자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와 공정자동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유럽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한국과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IT를 활용한 산업 융복합화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1.7억불을 포함, 총 2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4개 유럽기업들과 체결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 분야에 외국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첨단기술이 이전되는 효과가 기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투자국인 EU의 對韓 투자가 가속화될 경우, 다른 지역의 투자를 유발하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상반기중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 ☉ LED조명 KS국가표준이 IEC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 『세계 TOP 3의 LED산업강국』실현을 위한 국제표준 선점 -

정부는 LED조명 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제품과 부품의 IEC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세계 TOP 3의 LED산업강국』을 실현하고 해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정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남인석)은 2009년 4월 20일~4월 24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



최된 조명분야(IEC TC 34)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대체용으로 개발된 LED 램프와 LED 등기구에 대한 “KS국가표준을 IEC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국제표준화 회의에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17개국 50여명의 조명분야 국제표준전문가 등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에서 LED조명 제품의 성능 및 안전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한 “LED분야 기술위원회(IEC TC 34/SC 34E)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일반 조명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기 제안하여 채택된 무전극형광램프 및 냉음극형광램프(CCFL) 등 5종에 대하여 각 국가에서 제시한 코멘트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표준(CD단계)으로 추진한다.

또한, LED조명제품에 대한 KS국가표준을 추진함에 있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광램프용 G13 베이스의 LED램프 호환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각 국가의 표준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에 이상이 없을 경우, KS국가표준에 G13 베이스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LED램프 베이스를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IEC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조명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LED조명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수

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의장,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 주요 요직 수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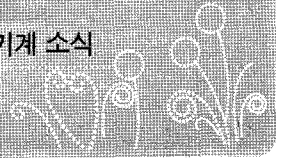
☉ **한전, 국내최초 1,2차 협력기업 자금지원 시행**

- 기업은행과 Power Energy Loan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4일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Power Energy Loan 공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과 동시에 launching 개시.

이번에 시행 예정인 Power Energy Loan은 한국전력과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을 기반으로 1,2차



협력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1차 협력사에 국한되어 운영되어온 모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를 한층 발전시킨 구조이다.

한국전력은 (주)코렘프(상품운영사)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주정보를 기업은행에 송부하고 은행은 발주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생산자금을 1차 협력기업 운영자금 및 2차 협력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를 지원 후 한전 결제자금으로 동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상생협력지원 상품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Power Energy Loan을 통해 1차 협력기업은 구매대금 금융비용 절감 등 기존 대출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생산자금을 지원받고 2차 협력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시 어음수취 등으로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제도 이용을 통해 납품대금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현금성 결제지원 등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국전력은 1차 협력사 운영자금 이용 금액의 0.4%,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 현금성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인 네트워크론, 공공구매론, 전자발주론 등을 운

영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자금지원실적은 1,954억원이다. 향후 Power Energy Loan의 발전 회사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2009년도에는 2,20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 실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 ☉ 한국 산업현실에 적합한 탄소시장 활성화 대책 모색

#### - 美·日·EU 전문가 초청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

◎ 최근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가속화,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 「녹색성장기본법」의 국회 상정 등 대내외 여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COEX 장보고홀에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동 포럼에는 국내외 산·관·학·연 및 금융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고, 美·日·EU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탄소시장을 주도하는 전문가가 함께하여 국내 탄소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최근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국제협상, 국내여건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배출



권거래제의 도입근거가 논의됨에 따라, 우리의 산업경쟁력 현실에 적합한 제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은 오늘 포럼이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하여 규제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들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점차 탄소시장 규모를 키워 나가겠다는 방침과, 규제 일변도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동 포럼은, 28일 국제탄소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어, 29일 오전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및 검증, 오후에는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세션인 “국제 탄소시장 동향”은 최근 UN 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탄소시장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이 추진 중인 정책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자발적 배출권거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미국의 CCX\*,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의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 美 CCX(Chicago Climate Exchange)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자발적 형태의 탄소시장

“기업 인벤토리(온실가스 통계) 보고와 검증체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벤토리 DB 구축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이 국내 인벤토리 보고 및 검증체계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해외전문가들은 기업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검증방법론을 소개했다.

마지막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현황” 세션에서는, EU, 일본, 호주 등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기업의 조기 감축노력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국내 경제·산업 경쟁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각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지식경제부 발표자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며, 국제협상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하며 중장기적, 점진적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패널토의에서는, 현재의 유럽, 북미, 일본의 탄소시장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적절한 규제 수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기되었다.

동 포럼에서의 논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탄소시장 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 사례를 통해 탄소시장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의 역할과 산업계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